

미혼 성인의 애착,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간의 관계*

진 경 선*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미혼 무자녀 성인을 대상으로 향후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이 개인의 애착 그리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260명의 2-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종속변인으로, 성별, 애착(회피애착, 양가애착),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을 통제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회피애착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부적적으로 예측하였다. 이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변인은 유의한 증분 설명량을 보였으며, 특히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이 친밀한 관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 그리고 나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공정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저출산,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애착, 회피애착,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 이 논문은 201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진경선,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

E-mail : kyongsun.jin@gmail.com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집계 이래 최초로 1 미만의 출산율을 기록하였고 뒤이어 2019년에도 0.92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20). 이러한 출산율의 하락은 전체 인구 감소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 1백 명당 부양해야 할 인구가 2017년 기준 36.7명(노인 18.8명)에서 50년 뒤 2067년에는 120.2명(노인 102.4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견된 바 있다(통계청, 2019).

이러한 초유의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제 1차-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추진 중이며, 최근까지 이 계획의 추진에 정부 재정 총 약 188억이 투입되었다(김경수, 2020). 그러나 아쉽게도 출산율은 회복할 기미가 없으며 사실상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

저출산 문제가 점차 심화되자 최근에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나아가 보다 여러 학문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출산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이삼식 외, 2016; Matysiak & Vignoli, 2010). 예컨대, 연구자들은 출산율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존의 사회·경제적 변인을 주로 다루는 거시적 관점과 더불어 개인의 삶의 질,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을 심리적 변인을 다루는 미시적 관점을 통합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 Liefbroere, 2009).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심리적 관점에서는 출산을 개인의 의사결정의 산물로 보고, 개인의 성격이나 특질, 개인의 출산에 대한 태도, 혹은 출산 관련 사

회 규범에 대한 지각 등 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경험이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Ajzen & Klobas, 2013; Falbo & Rodgers, 2019; Miller, 1992, 1994, 1995; Miller & Pasta, 1993; Kearney & White, 2016). 한국 사회는 현재 세계적으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므로(OECD, 2020), 한국인을 대상으로 출산과 관련한 심리적 변인을 탐색해보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심리적 분석의 탐색적 시도로서 한국의 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미혼 성인들이 친밀한 관계 및 사회의 공정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념과 그들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the desire to have children)과의 관련을 살펴보고자, 개인의 애착(attachment)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 미혼 성인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한국 미혼 성인들이 지각하는 자녀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미혼 20-44세를 대상으로 시행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변수정, 2019)를 살펴보면 미혼 남성의 경우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올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2%,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3.6%,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

은 28.9%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의 경우, ‘없어도 무관하다’는 비율이 48.0%로 가장 높고,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8%, 그리고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9.5%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3년 전 2015년에 동일 기관에서 유사한 문항으로 시행된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남성(2015년: 17.5%)과 여성(2015년: 29.5%) 모두 2018년 조사 시 ‘없어도 무관하다’라는 응답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출산에 대한 미혼 성인들의 생각이 최근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미혼 무자녀 성인들은 왜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이에 대한 이유를 객관식으로 물었을 때(변수정, 2019), 남성의 경우,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27.7%)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뒤이어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26.1%),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24.1%),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19.7%)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32.0%)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뒤이어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28.6%)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18.3%),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15.4%)라고 응답하였다. 객관식 문항의 주어진 선지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변인을 제외한다면, 남녀 모두의 응답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응답의 특성은 1) 자녀에 대한 관여(commitment)를 회피하는 경향, 그리고 2) 우리 사회가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 힘들 것이라는 믿음을 받

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착

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출산 의도와 연관된 심리적 변인을 살펴본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나, 선행연구는 개인의 애착에 주목하여 회피 애착(avoidant attachment)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 부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Rholes, Simpson, Blakely, Lanigan, & Allen, 1997). 애착은 생애 초기 영아가 양육자와 시간에 거쳐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며 이는 생존을 위한 진화적 기제로 여겨진다(Bowlby, 1969). 애착 이론은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양육자의 반응성(responsiveness) 혹은 민감성(sensitivity)을 대표로 하는 양육의 질에 따라 영아의 애착유형에 개인차가 나타난다고 본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예를 들어, 반응적인 양육을 경험한 영아는 안정애착(secure attachment)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안정애착 영아는 양육자가 자신이 고통에 처할 때 곧바로 자신에게 필요한 위안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반면, 무심하고 정서적으로 차가운 양육을 경험한 영아들의 경우, 불안정 회피애착(avoidant attachment)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자신이 고통에 처하였을 때 양육자가 적절한 위안을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를 보이지 않고, 양육자보다 낯선 사람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또한, 영아의 고통이나 요구에 즉시 반응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비일관적인 양육을 경험한 영아들은 불안정 저항애착(resistant attachment)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양육자와의 분리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양육자에 의해 쉬이 진정되지

못한다.

애착 이론은 이러한 생애 초기 애착이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기능하여 생애 전반에 걸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인지적 틀로서 기능한다고 본다(Bowlby, 1969). 생애 초기 애착과 성인 시기의 애착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하나(for a review, see Fraley, & Roisman, 2019), 많은 선행연구는 한 개인이 자신, 타인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지식, 믿음, 그리고 관계 내에서의 행동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하며, 성인의 애착 유형(attachment style) 혹은 애착 성향(attachment orientation)이라 불리우는 이러한 개인차는 개인이 애정 관계에 얼마나 관여하는지 여부(Segal & Fraley, 2016), 지지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여부(Jones, Cassidy, & Shaver, 2015), 그리고 개인의 정신건강(Bradford, Burningham, Sandberg, & Johnson, 2017)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Jayamaha, Girme, & Overall, 2017)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기능 및 개인의 심리건강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Rholes et al., 1997), 영아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Jia et al., 2016), 혹은 자녀를 인생에서 의미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정도(Rholes, Simpson, & Blakely, 1995)가 낮음을 밝힌 바 있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최근 우리 사회에서의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들 의미하는 바와 같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

녀에게까지로 대물림된다는 ‘수저론’이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저론은 사회에서 경쟁과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공정성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가 취업, 결혼, 그리고 출산을 미루거나 혹은 포기하는 ‘3포 세대’라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제안되고 있다(김은하, 김도연, 김수용, 2016; 김태훈, 2017). 예컨대, 만약 젊은 세대가 부모로부터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받았고 자신에게 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믿는다면 향후 자신의 자녀 역시 노력과 무관하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쉬울 것이다. 즉, 자신은 소위 ‘금수저’를 대물림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BJW)이 주목을 받아왔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선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공정하며,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기여한 바 혹은 노력한 바에 알맞은 대가를 받는다는 믿음을 의미한다(Lerner, 1980). 이 개념이 논의된 초기에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범죄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타인의 불행을 정당화하는 단순한 권선징악적 사고와 연관이 되어있다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된 바 있다(for a review, see Furnham, 2003).

그러나 보다 최근의 관점에서는 경우에 따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개인의 심리건강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Dalbert, 2001). 이에 연구자들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다차원의 개념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대표적으로 Lucas와 동료들(2007, 2011)은 사회정체성 이론(Tajfel, 1978; Tajfel & Turner, 2004)에 근거하여 BJW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개인적 믿음인지 혹은 주변 타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믿음인지로 구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정체성 이론(Tajfel, 1978; Tajfel & Turner, 2004)은 개인의 내집단 선호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 중 한 이론으로,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 대한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또한, Lucas와 동료들은 사회적 가치 지향 이론(Messick & McClintock, 1968; Schwartz, 1992)에 근거하여 개인의 믿음을 분배공정성 혹은 절차공정성에 대한 믿음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가치 지향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과 안녕을 주로 추구하는 자기지향적(proself)인지 혹은 타인의 이득과 안녕을 주로 추구하는 친사회적(prosocial)인지 여부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본다. Lucas와 동료들은 자기지향적 개인은 상대적으로 분배의 결과를 중시하며, 사회지향적 개인은 상대적으로 과정을 중시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보았는데, 이는 과정의 공정성은 특정 개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노력과 기여가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평가받을 의 미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Lucas와 동료들(2011)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총 4개의 하위요인을 분류하고 이를 타당화하여 절차적 및 분배적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Belief Scale; PDJWBS)을 개발하였다. 이 4개의 하위요인은 앞서 언급한 두 차원(개인적/일반적 믿

음, 분배/절차공정성)에 따라,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Distributive justice for self; DJ-self),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Distributive justice for others; DJ-others),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Procedural justice for self; PJ-self), 그리고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Procedural justice for others; PJ-others)이다.

선행연구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네 종류의 하위요인(DJ-self, DJ-others, PJ-self, PJ-others)이 각기 다른 심리적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다(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Lucas, Rudolph, Zhdanova, Barkho, & Weidner, 2014; Lucas, Young, Zhdanova, & Alexander, 2010; Lucas, Zhdanova, & Alexander, 2011). 예를 들어,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DJ-others)은 자신은 자신이 노력한 바대로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이므로, 이러한 믿음이 높을수록 낮은 우울이나 높은 안녕감을 보인다(Lucas et al., 2011).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DJ-self)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노력한 바대로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 즉 권선징악적 사고와 유사한 믿음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하위 요인이 높을수록 사회적 약자나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을 덜 느끼고 차별을 더 하는 등 더 혹독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Lucas et al., 2014).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PJ-self)은 자신이 받는 보상이 결정되는 과정 혹은 절차가 공정하다는 믿음으로서 사회적 관계에서의 만족감 혹은 안녕감(예,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직장관계 만족도)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PJ-others)은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보상이 결정되는 과정 혹은 절

차가 공정하다는 믿음으로, 이 믿음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상대적으로 공동체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이타주의, 약자에 대한 배려 등 개인의 친사회적인 태도를 예측한다.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출산 의도 혹은 희망에 대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이를 대체로 범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출산 의도를 ‘낳겠다’, ‘낳지 않겠다’, 혹은 ‘모르겠다’로 측정하는 방식이다(e.g., 강유선, 김찬우, 2018; 진경선, 2019, Heywood, Pitts, Patrick, Mitchell, 2016). 이러한 범주식 분류는 명확한 출산 의도를 가진 개인의 의도의 경우에는 이를 비교적 명료하게 측정할 수 있겠으나, 자신이 향후 자녀를 가질 것인가에 대하여 모호한 의도를 지닌 개인의 의도의 경우에는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범주식 분류에서는 서로 다른 정도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가진 개인들이 모두 ‘모르겠다’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히 성인 진입기나 성인초기, 혹은 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출산 희망을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된 등간척도를 사용하여 이들의 향후 부모가 되고자 하는 희망에 대해 살펴보았다(e.g., 진경선, 2020; Rhoads et al., 1995, 1997; Scharf, & Maysels, 2011; Yaakobi, E., Mikulincer, M., & Shaver, 2014). 예컨대, Rhoads와 동료들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desire to have children)은 7점 척도의 “I have a strong desire to have children. (나는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I know I would be very upset and disappointed if

my spouse and I could not have children. (나는 나의 배우자와 내가 자녀를 가질 수 없다면 매우 화가 나고 실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Yaakobi와 동료들의 미혼 성인 초기의 부모-관련 관심(parent-related cognition)은 7점 척도의 “I’m looking forward to become a parent. (나는 부모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I like the idea of becoming a parent. (나는 부모가 된다는 생각을 좋아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다 암묵적인 방식으로 출산 관련 의도를 측정하는 척도들은 출산 의도를 명시적인 범주로 구분하여 묻는 설문제에 비해, 성인진입기 혹은 성인 초기의 비교적 모호할 있는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의 개인차를 보다 잘 측정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혹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 개인의 심리적 현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개인이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심리적 경험을 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한국 미혼 성인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 연관된 심리적 변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미국 연구(Rhoads et al., 1997)에서 회피애착 수준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부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현재 한국의 미혼 성인들에게도 적용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나아가, 사회적으로 현재 젊은 세대의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정당

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미혼 성인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추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참가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기존에 특정한 심리 장애의 진단을 받은 바 없는 20, 30대 미혼 무자녀 성인 남녀 260명(남성 121명, 여성 139)이 온라인 설문 사이트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여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연령의 범위는 20세에서 39세까지였으며 평균은 27.07세($SD_{age} = 5.32$)였다. 모든 참가자는 설문에 앞서 사전 동의를 하였으며, 결혼 여부(“귀하는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까?”)와 자녀 유무를 묻는 사전 질문(“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에 미혼 및 무자녀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설문이 진행되었다.

측정도구

애착 유형 척도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인 애착 설문(Adult Attachment Questionnaire; AAQ)(Simpson, Rholes, & Phillips, 1996)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구사자 연구보조원 두 명이 영어 척도를 각자 번역한 후, 연구자 그리고 연구보조원 두 명이 함께 모여 서로 다른 표현에 대해 논의하여 합의를 이끌었다. 이후 또다른 이중언어 구사 연구보조원이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역번역하였다. 연구자는 최종

적으로 영어 척도 원본, 한국어 번역본, 그리고 영어 역번역본을 대조 검토하며 영어 문항의 의미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한국어로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가다듬었다.

성인 애착 설문은 응답자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경험에 관하여 묻는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8개의 문항은 회피(avoidance) 애착을 측정하고 9개의 문항은 양가(혹은 저항, ambivalence) 애착을 측정한다. 회피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믿는 것을 어려워한다.”, “나는 누구든 나에게 너무 가깝게 다가올 때면 불안함을 느낀다.” 등이며, 양가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합쳐지기를 원하고, 이러한 희망은 때때로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떠나게 한다.”, “나는 대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가까움과 친밀함을 원한다.” 등이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 = 매우 동의하지 않음, 7 = 매우 동의함)로 구성되어 있다. 각 참가자의 회피와 양가 정도는 해당 문항의 평균으로 계산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와 양가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안정 애착의 성인은 두 척도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게 된다(Fraley, Roisman, Booth-LaForce, Owen, & Holland, 2013). 회피 척도의 문항 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0.73으로 나타났으며 양가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 계수는 0.63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본 연구에서는 Lucas와 동료들(2007)이 고안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분배 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척도(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Belief Scale; PDJWBS)’를 김은하와 동료들(2017)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를 사용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척도는 개인의 믿음이 1) 자신(개인적)에 대한 것인지 타인(일반적)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2) 결과(분배)에 대한 것인지 혹은 과정(절차)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두 가지 기준, 즉 참가자의 믿음이 개인적인지 일반적인지, 그리고 결과에 대한 것인지 절차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총 4개 하위 요인으로 측정되며 각각의 하위 요인은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Distributive justice for self; DJ-self)은 자신이 노력하거나 이바지한 만큼 결과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을 믿는 정도를 측정하며, 예시 문항은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이다. 둘째,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Procedural justice for self; PJ-self)은 자신이 받을 보상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과정 및 그 절차가 정당하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며, 예시 문항은 “일반적으로 나는 공정한 절차를 경험한다.”이다. 셋째,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Distributive justice for others; DJ-others)은 타인이 노력하거나 이바지한 만큼 결과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을 믿는 정도를 측정하며, 예시 문항은 “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이다. 넷째,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Procedural justice for others; PJ-others)은 타인이 받을 보상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과정

및 그 절차가 정당하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며, 예시 문항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정한 절차를 경험한다.”이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 매우 동의하지 않음, 7 = 매우 동의함)로 측정되었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은 .87,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은 .76,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89, 그리고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90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본 연구에서는 Rholes와 동료들(1995, 1997)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설문(Desire to Have Children Questionnaire)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향후 자녀를 가지고 하는 희망을 측정하였다. 애착 척도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영어 척도를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연구보조원 두 명이 각각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이를 연구자와 두 명의 연구보조원이 합의를 거치며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후 또 다른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연구보조원이 역번역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원척도, 한국어로 번역된 척도, 그리고 역번역된 척도를 대조하면서 원척도 문항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최종 수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단일 요인을 측정하는 이 설문은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는 “나는 아이를 갖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 “나는 자녀 없이도 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역문항)와 같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 매우 동의하지 않음, 7 = 매우 동의함)로 측정되었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72로 나타났다.

절차

설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설문에 응답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연구의 목적과 예상 소요 시간, 연구참가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읽었다. 이후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또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결혼여부 및 자녀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미혼 및 무자녀라고 응답한 참가자들만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은 연령 및 성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질문,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애착, 그리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순으로 제시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척도의 내적일치도를 산출하고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참가자의 성별, 애착(회피애착, 양가애착)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DJ-self,

PJ-self, DJ-others, PJ-others)을 예측변인으로,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먼저,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각 주요변인 간의 전반적인 관계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분석 결과, 회피애착($r = -.50$)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가애착($r = -.04$)는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r = .18$),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r = .39$),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r = .26$), 그리고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

	1	2	3	4	5	6	7
1. 회피애착							
2. 양가애착	-.04						
3.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24**	-.20**					
4.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36**	-.12	.53**				
5.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16**	.03	.51**	.46**			
6.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32**	-.09	.37**	.60**	.55**		
7.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50**	.04	.18**	.39**	.26**	.52**	
평균	4.23	3.90	4.57	4.57	3.88	3.85	3.73
(표준편차)	(0.92)	(0.76)	(1.08)	(0.94)	(1.23)	(1.24)	(0.86)

* $p < .05$, ** $p < .01$

믿음($r = .52$)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회피애착, 양가애착, 그리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하위 4개 요인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에 대하여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토대가 되는 선행 연구(Rholes et al., 1997)의 분석 방법에 근거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먼저 예측변인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진단하였다. 예측변인의 분산 팽창요인(VIF)이 10보다 매우 작으므로(표 2)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한 Durbin-Watson 검정을 시행한 결과($d = 2.092$), 예측 변수들의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예측변인의 투입순서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성별을 투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회피

애착과 양가애착을,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하위 4개 요인(DJ-self, PJ-self, DJ-others, PJ-others)을 투입하였다. 예측변인의 투입순서를 이와 같이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존 조사에 의하면 자녀를 가지려는 희망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데, 예컨대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이소영 외, 2018)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임’, ‘없어도 무관함’의 선택지에 있어 여성(48%)이 남성(28.9%)보다 ‘없어도 무관함’이라는 선택지를 산술적으로 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변수정, 2019). 이와 일관적으로 본 연구에서도 여성($M = 3.39, SD = .73$)이 남성($M = 4.13, SD = .83$)보다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258) = -7.604, p = .000$. 따라서 성별을

표 2.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위계적회귀분석 결과 요약

단계 및 변인	β	t	R^2	ΔR^2	ΔF	VIF
1 성별			.183	.183	57.823***	
성별	.428	7.604***				1.000
2 애착			.326	.143	27.233***	
회피애착	-.402	-7.362***				1.131
양가애착	.048	.937				1.005
3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446	.120	13.669***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047	-.783				1.675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068	1.038				1.941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040	-.650				1.765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371	5.660***				1.961

주. R^2 = 조정된(adjusted) R^2 , β = 표준화된(standardized) 베타 회귀계수

성별은 여성은 0, 남성은 1로 더미 변수 처리

* $p < .05$, ** $p < .01$, *** $p < .001$ $N = 260$

첫 단계에 투입하였고, 기존 연구(Rholes et al., 1997) 결과,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회피애착, 그리고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양가애착을 두 번째 단계에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보다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세 번째 단계에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을 통제하고도 기존 해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회피애착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정당한 세상의 믿음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표 2), 첫 번째 분석단계에서 성별($\beta = .428, p < .000$)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며 18.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통제된 후 두 번째 단계에서 회피애착과 양가애착을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14.3% 증가하였으며, 회피애착($\beta = -.402, p = .000$)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양가애착($\beta = -.048, p > .05$)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개 하위요인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12% 증가하였다. 특히, 이 단계에서 투입된 변인 중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beta = .371, p = .000$)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그리고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p_s > .05$. 이러한 결과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하위 요인 중에서도 특히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이 자녀

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 관련이 더 큰 변인임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미혼 성인들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이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친밀한 관계 및 자신이 속한 세상에 대하여 가진 믿음과 기대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기존 선행 연구에서 미국 미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개인의 회피애착 수준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고, 나아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추가적으로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예측변인으로는 1단계에 성별, 2단계에 회피애착과 양가애착, 3단계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네 가지 하위요인(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을, 종속변인으로는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참가자들의 성별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설명하였으며,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더 낮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우리 사회를 포함하여 선진국 사회에서 미혼 여성이 미혼남성에 비하여 자녀의 필요성, 원하는 자녀의 수, 혹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낮게 보인다는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변수정, 2019; 이삼식, 2006; Thornton & Young-DeMarco, 2001; Seccombe, 1991).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사회의 양성평등의 수준이 낮게 지각될 때, 예컨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가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가사 및 양육의 역할이 더 과중하게 부여된다고 지각될 때, 여성들은 자녀를 가지고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남성보다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자녀의 필요성이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더 낮게 가진다는 것이다(Gillespie, 2003; Koropecjy & Pendell, 2007).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애착 및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이외에도 지각된 양성평등 수준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Rholes et al., 1997)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2-30대 미혼 성인들의 회피애착 수준이 자녀를 희망하는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회피애착과는 달리, 양가애착 수준은 자녀를 희망하는 정도를 유의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재현하였다. 이는 불안정애착 중 회피애착이 성인이 친밀한 관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과 기대가 이들의 연인 관계 또는 부부 관계(Frei & Shaver, 2002; Tucker & Anders, 1999)에 대한 관여뿐 아니라, 미래에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정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양가애착의 경우,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면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특성을 반영하며, 이에 따라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특별히 부적으로 예측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인 회피애착의 개인차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회피애착의 개인차의 근원에 대해 속고해보는 것은 저출산 정책 혹은 사회적 지원책을 고려함에 있어 함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기 애착의 개인차의 근원에 대한 논의는 생각보다 복잡한 편이다. 우선,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애착이론은 어린 시기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얼마나 반응적이고 민감한 양육을 받았는지가 애착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Ainsworth et al., 1978). 또한, 어린 시기 양육자와 형성한 애착은 개인의 내적작동모델로 작용하여 인생 전반에 걸쳐 친밀한 관계에 대한 기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Bowlby, 1969). 이러한 이론과 일관적으로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자를 둔 영아는 그렇지 않은 양육자에 비하여 낮은 상황(Strange Situation; 만 1-2세의 애착을 측정하는 대표적 과제)에서 안정 애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Ainsworth et al., 1978; De Wolff & van IJzendoorn, 1997). 또한, 종단 연구 결과, 만 1세 당시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영아는 그렇지 않은 영아에 비해 초기 아동기에 또래와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았고(Elicker, Englund & Sroufe, 1992; Kerns, 1994), 선생님으로부터 자아탄력성이 더 높다고 평정되었으며(Arend, Gove, & Sroufe, 1979), 그리고 청소년기 더 긍정적인 우정관계를 형성하였다(Englund, Kuo, Puig, & Collins, 2011).

관련하여, 성인기 애착의 개인차 연구는 주로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되었는데, 이러한 연구에서는 횡단설계에서 자기보고식 도구로 측정된 성인의 애착 유형 및 성향이

개인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기능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를 살피는데 주로 초점을 두어 왔다(e.g., Mikulincer & Shaver, 2007). 이러한 연구 역시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성인 애착의 개인차는 개인의 발달의 역사에서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사회심리학 문헌의 애착 연구에서 가정하는 발달의 역사는 단순히 영아기 양육의 질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인기 애착을 연구하는 사회심리학자들은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대인관계 경험 및 성인기 현재의 대인관계 경험까지 성인기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e.g., Hazan & Shaver, 1987).

한 장기종단연구(Fraley et al., 2013)는 발달의 어떤 변인이 성인기 애착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아가 태어난 지 1개월부터 15세가 될 때까지 다양한 양육환경 및 아동 변인을 추적하고, 또 이후 18세에 이르렀을 때 자기보고식 성인 애착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의 성인기 회피애착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발달 과정에서의 변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반응성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할수록, 아동기 전반 및 청소년기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동기 전반 및 청소년기의 우정의 질이 높을수록 성인기 회피애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8세 성인의 회피애착 정도는 양육환경의 긍정적 변화, 발달 과정에서의 사회적 유능성, 그리고 우정의 질이라는 변인이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예측변인들은 서로 공변 관계에 있으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성인기 회피 애착을 결정하는 발달적 요인은 다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발달적 차원에서 성인기 회피애착 수준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는다면, 사회적으로 양육의 질의 꾸준한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 그리고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성 증진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 교육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는 애착과 더불어 개인이 속한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미혼 무자녀 성인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변인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에 대하여 개인의 회피애착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유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개인의 집단적 정체성 그리고 친사회적 성향을 반영하며 따라서 이타성(altruism),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태도 등 자애로운 사회적 태도를 예측한다는 이론(Lucas et al., 2011)과 일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이 자녀를 낳고 자원을 투자하고 돌보는 행위는 자신의 안녕과 이득을 넘는 일종의 친사회적 행동(Cosmides & Tooby, 1987)이라는 관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나 자신뿐 아니라 누구나 공정한 절차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므로 이 사회에서 향후 자신의 자녀가 공정하게 평가받으리라는 믿음 자체가 자녀를 가지려는 희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 역시 가능할 것이다.

반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다른 세 가지 하위요인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DJ-self)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노력한 바대로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적 믿음으로, 이는 사회적 약자 혹은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가혹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Lucas et al., 2014).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 성향이 자녀를 희망하는 정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결과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믿음의 경우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DJ-others)의 경우,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자신이 노력한 바대로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Lucas et al., 2011).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PJ-self)은 자신이 받는 보상이 결정되는 과정 혹은 절차가 공정하다는 믿음으로 사회적 관계에서의 만족감 혹은 안녕감을 예측한다. 즉, 이 두 가지 개인적 믿음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 만족감을 예측할 뿐, 개인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예측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일종의 현신이 요구되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개인의 안녕감과 관련된 변인보다는 친사회성과 관련된 변인(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 연구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의 관련에 관한 첫 연구이므로, 향후 이러한 결과에 대한 재현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문제에 심리학적으로 접근함에 있어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공정한 과정과 절차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불공정함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여론으로 인하여 개인의 인지에 편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개입방안 역시 필요할 것이다(손연경, 이승연, 2020). 기존 선행 연구는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짧은 글을 읽은 실험 조건의 참가자들은 그러한 글을 읽지 않은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서 타인보다 용서하려 하였고(Lucas, Strelan, Karremans, Sutton, Najmi, & Malik, 2018), 더 높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김은하, 정보현, 2018). 향후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을 장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방안에 관하여 연구한다면 젊은 세대가 우리 사회를 보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아가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제안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나아가 심리적 관점에서 자녀를 가지려는 희망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에 대해 탐색하였으며 특히 미혼 무자녀 성인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저출산과 관련된 심리학적 변인을 살펴본 대다수의 기존 연구는 기혼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는 기혼 성인의 자녀가치관(이정원, 2009; Hoffman & Hoffman, 1973; Hoffman et al., 1978; Nauck & Klaus 2007), 결혼만족도나

부부 관계의 질(배광일, 2015; Lillard & Waite, 1993; Myers, 1997; Rijken & Liefbroer, 2009), 혹은 유자녀 여성의 양육스트레스(진경선, 2019)가 출산 의도 혹은 실제 출산 여부와 연관이 되어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결혼이 늦어지거나 혹은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이상림, 2019), 무엇보다도 미혼 무자녀 성인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바(변수정, 2019), 머지않은 미래에 출산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미혼 무자녀 성인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 및 이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에 대해 살펴보고(김양은, 하지영, 2016) 이에 적합한 선제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 문항을 토대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연구로 변인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애착 점화(Mikulincer & Shaver, 2001) 혹은 공정성 점화(김은하, 정보현, 2018; Lucas et al., 2018)와 같은 실험적 조작을 통하여 회피애착 그리고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기존 미혼 성인 대상 선행 연구는 소득 수준과 자녀 출산 의도와와의 관계에 대해 다소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강유선, 김찬우, 2018; 마미정, 2006; 진경선, 2019). 그러나 미혼 무자녀 성인의 경우, 아직 소득과 자녀를 원하는 정도와의 필요성이 탐색되지 않은바, 향후 연구에서는 소득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변인의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강유선, 김찬우 (2018).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110, 59-84.
- 김경수 (2020). 2019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 김양은, 하지영 (2016). 여대생들의 출산 및 양육, 자녀가치관을 통해 살펴본 저출산에 관한 이해. *열린부모교육연구*, 8(3), 121-140.
- 김은하, 김도연, 김수용 (2016).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일반 성인들의 화병 증상에 미치는 영향: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5), 25-45.
-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 (2017).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에 대한 연구: 척도 개발 및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643-667.
- 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 김지수 (2017).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689-710.
- 김은하, 정보현 (2018).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점화가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삶의 만족도, 가난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9(2), 323-342.
- 김태훈 (2017). ‘미루다 보니 꼴찌’ 저출산, 어찌해야 하나. *주간경향*, 1256.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712121455051&pt=nv> 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 마미정 (2006). 저출산 시대의 아동양육과 가

- 죽지원을 위한 아동복지 정책 탐구. *아시아 아동복지연구*, 4(4), 101-122.
- 배광일 (2015). 모의 심리적 요인 및 지역사회 양육 환경이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7(1), 31-53.
- 변수정 (2019). 미혼인구의 자녀 및 가족 관련 생각. *보건복지포럼*, 268, 19-34.
- 손연경, 이승연 (2020). 대학생의 분배 및 절차 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미래지향 시간관과 정신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1), 65-84.
- 이상림 (2019). 미혼 인구의 결혼 관련 태도. *보건복지포럼*, 268, 6-18.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삼식, 최효진, 계봉오, 김경근, 김동식, 서문희 등 (2016).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원 (2009).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 결정 경로 분석 -가치관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1), 323-351.
- 진경선 (2019). 만 0세 자녀 어머니들의 심리적 변인과 향후 7년 이내 후속 출산 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2), 175-192.
- 진경선 (2020). *저출산의 심리적 요인*. 서울: 집문당.
- 통계청 (2019. 3.). 2019 장래인구추계: 2017~2067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bSeq=&aSeq=37387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 통계청 (2020. 2.). 2019 출생, 사망통계 잠정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0865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Erlbaum; Hillsdale, NJ.
- Ajzen, I., & Klobas, J. (2013). Fertility intentions: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mographic Research*, 29, 203-232.
- Arend, R., Gove, F. L., & Sroufe, L. A. (1979). Continuity of individual adaptation from infancy to kindergarten: A predictive study of ego-resiliency and curiosity in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50, 950-959.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NY: Basic Books.
- Bradford, A. B., Burningham, K. L., Sandberg, J. G., & Johnson, L. N. (2017).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The roles of attachment and perceived spouse attachment behavior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3, 291-307.
- Cosmides, L. & Tooby, J. (1987). From evolution to behavior: Evolutionary psychology as the missing link. In J. Dupre (Ed.), *The latest on the best: Essays on evolution and optimality*. Cambridge (pp. 277-307). MA: The MIT Press.

- Dalbert, C. (2001). *The justice motive as a personal resource: Dealing with challenges and critical life events*. Plenum: New York.
- De Wolff, M. S., & Van Ijzendoorn, M. H. (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A meta analysis o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 571-591.
- Englund, M. M., Kuo, S. I. C., Puig, J., & Collins, W. A. (2011). Early roots of adult competence: The significance of close relationships from infancy to early adult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5*, 490-496.
- Elicker, J., Englund, M.,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s* (pp. 77-10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Falbo T., & Rodgers J. L. (2019). Population Psychology. In D. L. Poston (Ed), *Handbook of Population* (pp. 499-519), New York: Springer.
- Fraley, R. C., & Roisman, G. I. (2019). The development of adult attachment styles: four lesson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25*, 26-30.
- Fraley, R. C., Roisman, G. I., Booth-LaForce, C., Owen, M. T., & Holland, A. S. (2013). Interpersonal and genetic origins of adult attachment styles: A longitudinal study from infancy to early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 817-838.
- Frei, J. R., & Shaver, P. R. (2002). Respect in close relationships: Prototype definition, self report assessment, and initial correlates. *Personal Relationships, 9*, 121-139.
- Furnham, A. (2003). Belief in a just world: Research progress over the past deca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795-817.
- Gillespie, R. (2003). Childfree and feminine: Understanding the gender identity of voluntarily childless women. *Gender & Society, 17*, 122-136.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eywood, W., Pitts, M. K., Patrick, K., & Mitchell, A. (2016). Fertility knowledge and intentions to have children in a national study of Australian secondary school student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40*, 462-467.
- Hoffman, L. W. & Hoffman, M. L. (1973)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In J. T. Fawcett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pulation*. New York, Basic Books (pp. 19-76). New York: Basic Books.
- Hoffman, L. W., Thornton, A. & Manis, J. D. (1978)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pulation, 1*, 91-131.
- Jayamaha, S. D., Girme, Y. U., & Overall, N. C. (2017). When attachment anxiety impedes support provision: The role of feeling unvalued and unappreciate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1*, 181-191.
- Jia, Y., Cheng, G., Ding, F., Li, B., Ta, N., &

- Zhang, D. (2019). Mediation effect of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al warmth and the preference for infants. *Current Psychology*, 1-13.
- Jones, J. D., Cassidy, J., & Shaver, P. R. (2015). Parents'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s: A review of links with parenting behaviors, emotions, and cogni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9, 44-76.
- Kearney, A. L., & White, K. M. (2016). Examining the psychosocial determinants of women's decisions to delay childbearing. *Human Reproduction*, 31, 1776-1787.
- Kerns, K. A. (1994).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links between mother-child attachment and children's friendships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379-381.
- Koropecjy-Cox, T., & Pendell, G. (2007). The gender gap in attitudes about childlessnes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899-915.
- Lerner, M.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Plenum Press.
- Lillard, L. A., & Waite, L. J. (1993). A joint model of marital childbearing and marital disruption. *Demography*, 30, 653-681.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J., & Lebreton, J. M.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71-82.
- Lucas, T., Rudolph, C., Zhdanova, L., Barkho, E., & Weidner, N. (2014). Distributive justice for others, collective angst, and support for exclusion of immigrants. *Political Psychology*, 35, 775-793.
- Lucas, T., Strelan, P., Karremans, J. C., Sutton, R. M., Najmi, E., & Malik, Z. (2018). When does priming justice promote forgiveness? On the importance of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for self and other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3, 471-484.
- Lucas, T., Young, J. D., Zhdanova, L., & Alexander, S. (2010). Self and other justice beliefs, impulsivity, rumination, and forgiveness: Justice beliefs can both prevent and promote forgiv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 851-856.
- Lucas, T., Zhdanova, L., & Alexander, S. (2011).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beliefs for self and others: Assessment of a four-factor individual differences model.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2, 14-25.
- Matysiak, A. & Vignoli, D. (2010). Employment around first birth in two adverse institutional settings: Evidence from Italy and Poland. *Journal of Family Research*, 22, 331-349.
- Messick, D. M., & McClintock, C. G. (1968). Motivational bases of choice in experimental gam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 1-25.
- Miller, W. B. (1992). Personality traits and developmental experiences as antecedents of childbearing motivation. *Demography*, 29, 265-285.
- Miller, W. B. (1994). Childbearing motivations, desires, and intentions: A theoretical framework. *Genetic, Social & General Psychology*

- Monographs*, 120, 223-258.
- Miller, W. B. (1995). Childbearing motivation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27, 473-487.
- Miller, W. B., & Pasta, D. J. (1993). Motivational and non-motivational determinants of childnumber desires. Population and Environment: *Behavioural and Social Issues*, 15, 113-138.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1). Attachment theory and intergroup bias: Evidence that priming the secure base schema attenuates negative reactions to out-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97-115.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Guilford Press: New York.
- Myers, S. M. (1997) Marital uncertainty and childbearing. *Social Forces*, 75, 1271-1289.
- Nauck, B., & Klaus, D. (2007). The varying value of children: Empirical results from eleven societies in Asia, Africa and Europe. *Current Sociology*, 55, 487-503.
- OECD (2020), *Fertility rates (indicator)*. doi: 10.1787/8272fb01-en (Accessed on 03 September 2020)
- Philipov, D., Thevenon, O., Klobas, J., Bernardi, L., & Liefbroer, A. (2009).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REPRO)*. Retrieved July 30, 2020, from http://www.oeaw.ac.at/vid/download/edrp_1_09.pdf
- Rholes, W. S., Simpson, J. A., & Blakely, B. S. (1995). Adult attachment styles and mothers' relationships with their young children. *Personal Relationships*, 2, 35-54.
- Rholes, W. R., Simpson, J. A., Blakely, B. S., Lanigan, L., & Allen, E. A. (1997). Adult attachment styles, the desire to have children, and working models of parenthood. *Journal of Personality*, 65, 357-385.
- Rijken, A. J. & Liefbroer, A. C. (2009) The influence of partner relationship quality on fertilit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5, 27-44.
- Scharf, M., & Maysel, O. (2011). Buds of parenting in emerging adult males: What we learned from our par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6, 479-505.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y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5 (pp. 1-65). New York: Academic Press.
- Secombe, K. (1991). Assess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children: Gender comparisons among childfree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91-202.
- Segal, N., & Fraley, R. C. (2016). Broadening the investment model: An intensive longitudinal study on attachment and perceived partner responsiveness in commitment dynam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3, 581-599.
- Simpson, J. A., Rholes, W. S., & Phillips, D. (1996). Conflict in clos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99-914.
- Tajfel, H.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Tajfel, H., & Turner, J. C. (2004).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J. T. Jost & J. Sidanius (Eds.), *Political psychology: Key readings* (pp. 276-293). London: Psychology Press.
- Thornton, A., & Young-DeMarco, L. (2001). Four decades of trends in attitudes toward famil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The 1960s through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1009-1037.
- Tucker, J. S., & Anders, S. L. (1999). Attachment style, interpersonal perception accurac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dating coupl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403-412.
- Yaakobi, E., Mikulincer, M., & Shaver, P. R. (2014). Parenthood as a terror management mechanism: The moderating role of attachment orient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0, 762-774.

논문 투고일 : 2020. 09. 09

1 차 심사일 : 2020. 09. 14

게재 확정일 : 2020. 10. 26

Relationships among the Desire to Have Childr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Belief in a Just World

Kyong-sun Jin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plored 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the desire to have children of young adults who had yet to marry and begin a family. To do so,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desire to have childr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belief in a just world (DJ-self, PJ-self, DJ-others, and PJ-others). This study analyzed the self-reported data of 260 adults aged 20 to 39.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individuals with more avoidant models of close adult relationships showed less desire to have children. Moreover, the belief in a just world accounted for an additional variance. Specifically, participants' PJ-others positively predicted their desire to have childre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dividuals' expectations about close relationships and justice of their society might explain a part of their desire to have children.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low birth rate, desire to have children, attachment, avoidant attachment, belief in a just world, procedural justice beliefs for others